

국내 최초의 현수교. 남해대교 이야기

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이은 남해대교는, 1968년 착공해 1973년 6월 22일 문을 연 대한민국 최초의 현수교다.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의 염원을 현실로 바꾸며, 남해도의 지리적 고립을 끝내고 남해·하동·여수·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·물류의 동맥을 열었다. 지금도 붉은 실루엣으로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이 다리는 '길의 시대'를 선언한 상징물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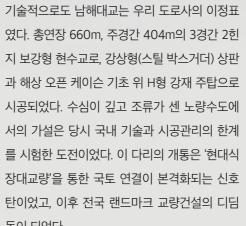
- 11 남해대교 500m 옆에 2018년 9월 개통한 노량대교가 있다
- 2 남해대교 개통식에 참석한 국민들(1973년 6월 22일)
- 3 현대건설이 케이블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(1972년)

돌이 되었다.

남해대교의 자리 또한 역사와 맞닿아 있다. 다리 아래 노량 바다는 임진왜란 최후의 격전지로, 이 순신 장군이 장렬히 전사한 곳이다. 과거의 바다 를 건너 전해오는 충무공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 해 '기억 위에 놓인 남해대교'를 밟는다.

2018년 9월, 남해대교 500m 옆에는 더 긴 주 경간과 우수한 교량 건설기술을 가진 노량대교 가 개통하며 옛 명성을 놓아주게 되었지만, 남 해대교는 여전히 한려해상 풍경 속 우리나라에 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로서 존재감을 지키고 있 다. 첫 현수교가 열어젖힌 기술과 교통을 넘어 관광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.

그날, 남해대교 건설은 오늘날 도로인의 역사적 귀감이다.



출처 및 참고자료: ©국가기록원, ◎한국우표포털

50 | 도로교통 제180호 www.kroad.or.kr | 51